

NEW IDEAS FOR YOUR HOME AND LIFESTYLE

2017 NOVEMBER
WWW.CASALIVING.CO.KR

CASA LIVING

늦가을을 위한 그리너리

어느 멋진 날, 저택에서

예술을 디자인하다, 피에르 폴랭

가을 공간을 물들이다

온기를 더해주는 패브릭 아이템

편안함에 대한 재정의

2017 메종&오브제 파리를 읽다

이토록 경쾌한 디자인 실험

2017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리포트



FURNITURE

우아한 휴식, 로 체어
나를 안아줘, 빈백 체어

HOME

집이라는 그림
비움으로 채우는 집

BEAUTY & HEALTH

홈스파로 힐링하기
초보 홈 트레이닝 가이드

입문자 길라잡이&홈 엔터테인먼트 추천 제품&사례별 솔루션

집에서 즐기는 명화 극장

값 7,500원



오브제가 된 그릇 색의 상호 작용

빛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다양한 시각적 착시는 디자인 세계에서 흥미로운 주제다. 투명한 재료와 컬러가 만나 완성하는 다채로운 스펙트럼.

에디터 조고은

사람의 눈은 얼마나 정확할까? '본다'는 것은 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뇌에서 인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배경색에 따라 같은 색도 상대적으로 다르게 вос각하는 경험을 어렵지 않게 한다. 뉴욕의 디자인 스튜디오 '오브젝트 오브 커먼 인터레스트(Objects of Common Interest)'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주목했다. 요제프 알베르스(Josef Albers)의 이론 '색채의 상호 작용'에서 받은 영감을 유리와 아크릴 소재에 온전히 담아낸 테이블웨어 컬렉션 '컬러의 상대성(Relativity of Color)' 시리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유리 소재와 그보다 조금은 흐린 반투명 아크릴이 어우러져 한층 다양한 컬러의 조합을 보여준다. 단순한 형태에 매끄러운 선이 돋보이는 화병, 접시, 볼, 넓은 컵, 낮은 유리잔 등으로 구성했으며, 클래식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테이블 위 고상한 오브제가 되어준다.



오브젝트 오브 커먼 인터레스트가 디자인한 '컬러의 상대성' 시리즈는 매터.